

나주혁신도시 '교통 요충지' 부상 광주~전남~영남 철도로 잇는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 본격 추진

'광주 송정역~순천' 경전선
기본계획 수립 연내 확정

빛가람(나주)혁신도시가 광주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해 영남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이 본격 추진되고, '광주 송정역~나주혁신도시~보성~순천'을 잇는 경전선 신선 기본계획 수립도 연내 확정되기 때문이다.

15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광주상무역~나주역 간'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총 2억400만원이 투입되는 용역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긴급입찰을 통해 선정한 ㈜스튜디오갈릴레이를 통해 내년 10월16일까지 360일간 진행된다.

주요 과업내용은 광주도시철도 1·2호선, 나주혁신도시, 호남고속철이 정차하는 나주역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추진 방향은 나주혁신도시 활성화, 광주남구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에 따른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철도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용역 결과 '사업 추진의 시급성·경제성·주민편의성' 등에 따라 정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용역은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동·서부를 균형감 있게 연결하고 발전시켜 줄 2개역 신설 여부와 그간 역사 후보지로 거론됐던 한국전과통신진흥원 일대와 전력거래소 사거리 등이 포함될지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조5235억원을 투입해, 광주 상무역~나주혁신도시~호남고속철 나주역을 잇는 총연장 28.1km의 새로운 철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데 1시간 21분 소요되던 물리적

거리감이 33분 생활권으로 2배 이상 단축된다.

여기에 '광주 송정역~나주혁신도시~보성~순천'을 잇는 경전선 신선 기본계획 수립도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2025년 준공 예정인 '경전선 신선'은 총연장 122.2km, 설계속도는 시속 250km이다.

선로가 구축되면 기존에 2시간 16분 걸렸던 '광주송정~순천'의 운행 시간이 43분대로 크게 단축된다.

특히 나주혁신도시 신설역에서 전남 동부권과 경남지역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호남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보성~순천~진주~마산을 거쳐 경남 밀양 삼랑진까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다.

현재 삼랑진과 순천을 잇는 영남권역은 복선 전철화사업이 이미 완성 혹은 진행 중이지만 호남권역인 '광주송정~순천' 구간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이후 단 한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전남=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다례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강진여중 학생들.

“보성서 다례교육·녹차초콜릿 만들어요”

한국차박물관, 체험프로그램 다채

보성군 한국차박물관이 '위드 코로나 시대'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는 체험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한국차박물관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다례교육, 블렌딩차·녹차초콜릿·녹차떡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차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보성의 차 명인이 알려주는 다

례교육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급차를 이용하여 차를 우리는 방법과 행다 예절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공간 공유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여섯 번째 전시인 사진 설치미술 작가인 이수산 씨의 'Photography, 빛으로 그린 그림' 전(展)이 열린다.

/보성(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신안군, 해양수산업 조기공모 추진

양식어장 설비 지원 등 213억 규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경쟁력 있고 잘사는 어촌 조성을 위한 2022년도 해양수산업 조기발주 하기 위해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신청을 두달여 앞당겨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사업은 어업용 선박의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한 양식어장 자동화 설비 지원사업 등 총 40종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13억원 규모이다.

또한, 신안군의 우수시책인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구입 임대사업과 수산물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수산물 소포장 지원사업, 그리고 고품질 왕새우 양식의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세 및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등도 함께 신청받는다.

사업 신청기간은 2021년 11월 08일부터 12월 07일까지 30일 기간 동안이며, 사업 신청은 신안군 관내에 주소와 체 및 어업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기한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수산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경북도, 청년 창업축제 'BETA 페스티벌'

안동 그랜드호텔서 18일 개최
창업컨설팅·기업투자 상담 진행

청년 창업 축제인 'BETA 페스티벌 2021'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15일 안동시에 따르면 'BETA'는 'Bean Entrepreneur at Andong' 약자로 '안동에서 기업가가 되자'라는 의미를 담았다.

경북 도내 지자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창업축제는 안동형 일자리사업 일환이다.

창업기업과 투자자 등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 및 창업문화



안동시청.

저변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첫날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스타CEO 허경환과 조용민 매니저로부터 창업 경험, 노하우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창업환경 변화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사전접수를 통해 창업컨설팅과 기업 투자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안동지역 내 15개 스타트업기업 전시관도 둘러볼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스타트업기업을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도 한다.

주요 행사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경연하는 '아이디어톤 대회'가 대학생 등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기업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관영세 안동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상상할 수 있는 창업 커뮤니티가 구축되고, 창업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영양군, 환경친화 숙박시설 '에코촌' 조성

2025년까지 120억 투입

별빛 아래 휴식 공간, 영양군 밤하늘 아래 에코촌 조성한다.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수비면 일원에 2022년 ~ 2025년 (4년)에 걸쳐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친화적 숙박시설인 에코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양군을 대표하는 노래 '박구윤(영양군 홍보대사)'의 '별과 당신'의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양군은 청정하고 인공 빛이 적은 지역으로 밤이 되면 유독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는 지역이며, 특히 영양군 내에서도 수비면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밤하늘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국민의 숲'으로 지정된 국내 최대 자작나무 숲 군락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영양군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관광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에코촌을 조성할 것이며, 에코촌에는 숙박, 교육 등을 위한 별빛센터 및 별빛정원, 청정힐링숲 등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영암군, 과수화상병 예방 전정도구 소독용품 지원

영암군은 이달 22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본격 전정시기가 도래하기 전 배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정도구 소독용품을 지원한다.

과수화상병은 발생 시 전염이 빠르고 치료가 어려워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관리되고 있다.

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신북면 농업인상담소를 거점으로 관내에서 배 사과를 재배 중인 농업인 298 농가에 농작업 도구 소독용품(소독용 알코올 83%)을 배부할 계획이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했다.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 직거래장터 운영

말린죽순·단감 등 15개 품목 판매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주인순)는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협광주지역본부에서 진행한 직거래장터에 참여해 담양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렸다. 이날 직거래 장터에서는 청정도시 담양에서 직접 생산하고 수확해서 말린 죽순, 호박나물을 비롯한 단감, 생강, 참기름 등 15가지 품목을 판매했으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담양장터'를 소개했다.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은 "직거래장터를 통해 담양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얻은 수익금은 관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담양(전남)=최영성 기자 dudtkd2343@